

# AI 기반 농업 환경제어 기술 개발 나선다

전남농기원, 생산성 향상·비용 절감 기대  
생육·수량 예측...중소농 스마트농업 전환  
스마트팜 혁신밸리·시범농가 중심 상용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중소 농가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제어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5일 “농촌진흥청, 대학, 농업전문기업과 협력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농업 빅데이터 기반 AI 연계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업 노동력 감소, 생산비 상승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험 중심의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AX(농업 전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환경·생육·경영 데이터를 수집해 농업 빅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는 이를 활용해 AI 분석과 환경제어 기술을 결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온도·습도·일사·이산화탄소 등

환경 데이터와 초상·엽면적·작과 등 생육 데이터, 관수·환기·양액 공급 등 제어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기반으로 작물 생육과 수량을 예측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환기, 관수, 양액 공급 등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 환경제어 시스템과 모바일 기반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영농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농업 AX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윤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기술 표준화와 상용화를 통해 보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자동화 제어를 통한 노동력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단동형 등 중소형 온실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환경제어장치 개발로 중소농가의 스마트농업 접근성 향상과 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AI 기반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통해 전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정기자



## 무농약 인증 ‘1004섬바나나’ 본격 출하

신안 청년농업인 24명 196t 생산  
학교급식·백화점 등 전문 매장 판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1004섬 신안에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무농약 인증 바나나를 올해 본격 출하된다.

15일 전남도와 신안섬바나나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신안 도초·비금·팔금면 등 3곳에서 청년농업인 24명이 전국 최대 5ha 면적에 바나나를 재배해 연간 196t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2025년 6월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다. 선별장과 저온·유통시설까지 갖춰 신선도와 안전성은 물론 식감과 당도 등 품

질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확한 바나나는 전남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등 학교급식과 이마트, 백화점 등 전문매장 등에 ‘1004섬바나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이들이 생산한 무농약 바나나를 오는 5월부터 경기도와 광주 지역 등에 월 10t(kg당 6천원)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과 연계 확대하겠다”며 “신선도와 안전성, 품질까지 검증된 ‘1004섬바나나’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남광주농협이 최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상위그룹(A1) 전국 1위를 수상했다. 사진은 이영종 남광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남광주농협 제공>

## 남광주농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전국 1위 금자탑

생명보험 분야 최상위그룹

지역 기반 금융기관 경쟁력 재확인

남광주농협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분야 평가에서 최상위 성과를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남광주농협은 15일 “최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최상위그룹(A1) 전국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국 1천100여 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생명보험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무소와 임직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단순한 판매 실적뿐 아니라 조합의 신뢰도와 경영성과,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가린다.

이번 시상식에서 남광주농협은 최상위 그룹(A1) 1위를 비롯해 건강보장성보험 부문(그룹 1) 1위, 우수 학습조직(그룹3) 경영진 부문 2위까지 차지하며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는 조직 전반의 역량과 현장 중심의 영업력 이고르게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영종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의 헌신과 남광주농협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조합원 및 고객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실익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고객과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자연·예술·휴식 결합 체류형 힐링 명소

4월 농촌휴양마을 ‘광양 섬진강끝마을’

캠핑장·미술관·실내 숙박시설 등 조성

전남도가 4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광양 섬진강끝마을을 선정했다.

섬진강끝마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광양 진월면 섬진강 끝자락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 옆 섬진강변에 대규모 유채꽃밭은 지역을 대표하는 볼 풍경으로 유명하다.

이 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캠핑장과 작은 미술관, 실내 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과 지역 주민이 농촌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섬진강끝마을에서는 딸기, 블루베리, 수박, 매실 등 계절별 농산물 수확체험과 족, 대봉감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천연염색 체험, 목공예



협, 섬진강 작은미술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천연 염색체험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연환경 경험과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호평받고 있다.

섬진강 작은미술관은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관람과 연계된 체험 콘텐츠가 함께 진행되는 문화공간이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기획전과 체험프로그램은 관람객에게 일상을 내려놓고 힐링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섬진강끝마을은 아이들이 자연과 농촌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마을학교와 작은유치원 등 연계사업을 펼치고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방문객이 하루를 편하게 보내도록 깔끔한 내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방문객은 캠핑을 즐기도록 별빛야영장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과 시설 현황 등 자세한 정보는 전남도 농촌체험관광 누리집(<http://www.jnfarm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도시민이 농촌의 매력과 여유로움을 느끼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